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향분석

이종성¹ · 오주성 · 손흥대 · 양원진 · 정원복 · 정순재 · 김도훈*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¹경남도청 유통과

An Analysis of Consumer's Taste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Lee Jong Sung¹, Oh Ju Sung, Shon Hung Dae, Yang Won Jin,
Chung Won Bok, Jeong Soon Jae and Kim Doh-Hoon*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and Life Scienc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604-714.
¹Keong Nam Provincial Office, Marketing Section, Changwon, Korea, 641-702

Abstrac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public concern about environmental safety and human health of field crops while customer consumes more and more field crops, to which overdose and residual chemicals were applied. As a solution for the problems, construction of sustainable agroecosystem is spreading out to pursuit the economic value of agricultural management as well as to meet environment concern. Public has extended their understanding on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nd safe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governmental policy toward sustainable agriculture drives rapid increase of the production of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s. Under this circumstances, it is time to encourage more consumption and to activate market system for the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was initiated to diagnose the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of domestic sustainable agriculture by analyzing the overall opinions of consumer on the sustainable agricul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ursuit of low input management is a prerequisite to creat high valued agricultural products, and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to produce clean crops using natural products.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10~50% more prices if the products get certified by official eco-label programs. It is believed that practice of sustainable agriculture using biopesticide and natural pesticide would accelerate the rapid extension of this pro-environmental agricultural management. To activat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s correct informations on safety should be addressed to customer, and confidence has to be brought about from customer. This could be done by obtaining various and efficient distribution route, product competency for quality, upgraded sales strategy, maximum utilization of certificate system, and practice of recall system, so on.

Key words – Sustainable agriculture, Biopesticide, Natural Pesticide, Customer, Histogram

*To whom all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Tel : 051-200-7509, Fax : 051-200-6993
E-mail : dschung@mail.dong.ac.kr

서 론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 동안 다수확 및 소득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농약·화학비료 등의 과다사용과 축산분뇨 등의 과다발생으로 농경지, 농업용수 등의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일부 농경지에서는 특정 양분함량이 증가하고 유기물함량이 저하되는 등 지력이 약화되어 농업생산의 지속성이 우려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과 동시에 농업환경 기반을 유지·보전하고 국민들에게 안전농산물 공급요구에 부응하며, UR 이후 Green Round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에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즉, 농업을 통하여 수량, 소득, 농산물 안전성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으면서 그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 지력저하 등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농업으로 환경보전형 농업(Environment Conserving Farming), 환경친화적 농업(Environment Friendly Farming), 환경조화형 농업(Environment Compatible Farming), 유기농업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만족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은 화학물질인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최소화 내지 일체 사용하지 않으면서 병해충 종합방제(IPM : Integrated Pest Management), 작물양분종합관리(INM :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가축분뇨종합관리(IWM : Integrated Waste Management), 첨단공학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등 최첨단 농업기술을 이용하고, 윤작·간작 등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영농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11,12]. 따라서 친환경 농업의 목표는 토양 및 수질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 농업생산의 안전성·지속성 및 환경보전 등에 있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국민의 소득향상과 함께 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이 고급화되면서 품질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친환경농산물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의식구조 변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농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는 계속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재배되어온 농산물을 유기재배 농산물, 전환기 유기재배 농산물, 무농약재배 농산물, 저농약재배 농산물 등으로 구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2,3,4,5,13].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성향을 종합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설문지조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성향조사는 서울 강남 지역 중학교 2학년, 강북지역 중학교 2학년, 부산지역 중학교 4학년 그리고 창원지역은 고등학교 2학년을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학급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총 500매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회수된 설문지는 366매였다.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미치는 요인 분석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이 설정되고 검증되었다.

가설설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정도) 잔류농약에 대한 생각 정도, 건강식품, 판매 가격, 구입장소, 구입장소 선택이유, 친환경 농산물의 단점과 개선점과 같은 요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 경험적 통계분석을 통하여 위 설정한 가설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명목적으로 이루어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의향간의 관계는 ANOVA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고, 그리고 잔류 농약, 건강식품, 판매가격, 구입장소, 구입장소 선택이유, 친환경 농산물의 단점 및 개선점 등 요인과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의향간의 관계는 상

관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고, 각 요인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설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15,16].

결과 및 고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간의 관계 분석

가족수, 자녀수, 나이, 거주지, 학력수준, 월평균 소득 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간의 관계를 ANOVA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으로 가족수와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간의 차이는 F값이 0.964이고, 유의확률도 0.427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으며 자녀수와 구입의향간의 차이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이에 따른 구입의향은 40대, 30대, 50대, 2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F값이 2.421, P<

Table 1. ANOVA analysis of the consumer's taste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various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Factor	class	N	Group mean	Total mean	F value	Significant probable
Family number	2person	5	2.00	1.76	.964	.427
	3person	24	1.83			
	4person	218	1.67			
	5person	81	1.93			
	6person more	27	1.81			
Children number	1person	32	1.72	1.76	2.421	.066
	2person	264	1.70			
	3person	50	1.98			
	4person	6	2.67			
Age	twenties	4	2.25	1.77	1.537	.191
	thirties	68	1.76			
	forties	269	1.73			
	fifties	12	2.08			
	sixties more	3	3.00			
Dwelling district	Seoul	126	1.51	1.77	6,225	.002
	Busan	146	1.95			
	Changwon	85	1.84			
Monthly average pay	<150,000₩	17	2.65	1.77	6.818	.000
	100,000-150,000₩	50	1.94			
	150,000-200,000₩	65	1.94			
	200,000₩<	172	1.51			
	Non-standardize	52	1.94			
Academic career	elementary school	5	2.80	1.77	8.522	.000
	graduates	20	2.75			
	middle school					
	graduates	164	1.84			
	high school					
	graduates					
	university	144	1.60			
graduates						
graduate school	22	1.23				

Note ; ANOVA : Table of the analysis of variance

0.05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에 따른 구입의향은 통계학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적으로 서울, 창원, 부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 인구학적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거주지별이었으며, 부산보다 창원이 특히 높게 나타난 것은 표본집단이 경상남도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창원중심지에 속하고 있어 경제적 수준이 약간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학적 요인인 월평균 소득과 학력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 150~2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100만원 이하 순이었으며, 월평균 소득과 구입의향간의 관계는 F값이 6.818,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학력과 구입의향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한 수준 $P < 0.01$ 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여 가격이 높더라도 환경 친화적인 건강자연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 사회환경적 요인과 구입의향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간의 상관분석

잔류농약, 건강식품 판매가격, 구입장소, 구입장소 선택

이유, 친환경 농산물 단점, 품질인증 등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들과 구입의향간의 단순상관관계는 친환경 농산물의 단점을 제외하고는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과 구입의향간의 상관계수는 0.148이며,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농산물보다 좋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구입의향간의 상관계수는 0.278로 약간 높게 나타났고, 판매가격과 구입의향간의 상관계수는 0.193으로 나타났으며, 구입장소와 구입의향간의 상관계수는 0.223으로 높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장소 선택 이유와 구입 의향간의 상관계수는 0.252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농산물의 단점과 구입의향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품질보증과 구입의향간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0.331로 나타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과 관련이 없는 다른 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잔류농약과 건강식품, 건강식품과 품질보증, 판매 가격과 구입장소, 판매가격과 품질보증, 구입장소 선택 이유와 품질보증, 친환경 농산물 단점과 품질보증 등의 관계이었다. 그리고 0.05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상관관계는 잔류농약과 품질보증, 구입장소와 장소선택이유, 구입장소와 품질보증 등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한 가설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단점이 친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consumer 's willing to buy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Variale	1	2	3	4	5	6	7	8
Buying taste of future	1							
Residual chemistry	2	0.148**						
Health food	3	0.278**	0.162**					
sale price	4	0.193**	-0.052	0.077				
Purchase place	5	0.223**	-0.100	0.038	0.172**			
Reason for place selection	6	0.252**	0.027	-0.011	0.114*	0.115*		
Fault of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7	0.047	-0.091	0.063	0.090	0.013	0.005	
Warranty of the quality	8	0.331**	0.079*	0.175**	0.140**	0.116*	0.180**	0.262**

* Significant of $p < 0.05$

** Significant of $p < 0.01$

환경 농산물을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고 그 외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즉 친환경 농산물의 단점과 구입의향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며, 그 외 잔류농약, 건강식품, 판매가격, 구입장소, 장소선택 이유 및 품질인증과 구입의향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유의성을 검증해 보았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앞의 ANOVA 분석을 통해 유의한 관계가 밝혀진 거주지, 월평균 소득, 학력만을 가변수로 도입하여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이 0.25로 본 모델의 영향요인들은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을 25% 정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회귀계수(β)는 각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본 모델에서 품질인증 요인이 구입의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간의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구사회학적인 변수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일부가 채택되었고,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서도 보다 명확히 확인되었다. 잔류농약에 대한 인식 정도와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간의 관계는 잔류농약의 인식의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설은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beta=0.106$)로 크기가 낮지만, $p<0.05$ 의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가설이 인정되었으며 친환경 농산물이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차별성이 홍보되고 신뢰가 쌓이면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beta=0.172$, $p<0.01$)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가설로 인정되므로 「친환경 농산물은 건강식품이다」라는 인식을 높여 소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가격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beta=0.108$, $p<0.05$) 가설이 인정되고 대량생산이 어려운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것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으면 수요 위축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 장소가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높은 통계 수준에서 유의성($\beta=0.141$, $p<0.01$)이 인정되었으므로 소비자가 쉽게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가 많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월평균 소득이며 $p<0.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과 기타지역으로 범주화하여 가변수화한 것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는데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서울 거주자와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간의 관계는 미미한 수준에서 영향력($\beta=-0.013$)을 나타내고 있으나, $p=0.820$ 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부의 영향력($\beta=-0.100$)을 나타내고 $p<0.10$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의 표준회귀계수($\beta=-0.056$)로 ANOVA분석에서는 대졸 이상일수록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 대졸이상, 대졸미만으로 가변수화한 것에서는 유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장소 선택의 이유도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회귀분석결과 높은 통계적 유의수준($\beta=0.157$, $p<0.01$)에서 인정되었으므로 현재 친환경 농산물의 장소를 선택하는 이유가 집 근처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일상용품들과 같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볼 때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품질보증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높은 통계적 유의수준($\beta=0.208$, $p<0.01$)에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재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가 마련되고 철저한 관리와 함께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6,8].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the consumer 's taste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Variale	Regression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S · 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β)	Sinificant probable
Dwelling district(seoul)	0.029	0.128	0.013	0.820
Monthly average pay(200,000₩ <)				
Academic career(University graduate more)	-0.106	0.063	-0.100	0.090
Residual chemistry	-0.119	0.126	-0.056	0.345
Health food	0.118	0.055	0.106	0.033
Selling price	0.205	0.059	0.172	0.001
Purchase place	0.159	0.073	0.108	0.030
Reason: for place selection	0.129	0.046	0.141	0.006
Warranty of the qualty	0.133	0.043	0.157	0.002
	0.215	0.052	0.208	0.000
R ²				0.250
Adjusted R ²				0.230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대한 히스토그램분석

잔차를 이용한 분석의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표준화된 잔차와 빈도에 대한 히스토그램에서 최저값 -1.891, 최고값 4.484, 평균 0.00, 표준편차가 0.987로 나타났으며 분산의 정도가 거의 정규분포곡선을 이루고 있어 설문에 대한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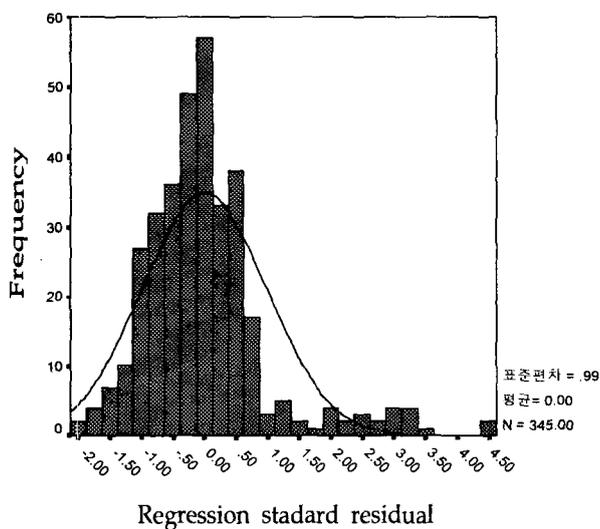


Fig. 1. Analysis of histogram on consumer's taste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ig. 2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석에서 정규분포곡선을 이루고 있는 결과에서 기대분포와 관측분포를 비교하는 또 다른 방법은 표준화된 잔차들에 대하여 두 개의 누적분포(기대분포와 관측분포)를 점도표화 하는 것인데, 위의 분석 결과, 정규분포선상에 표준화된 잔차들이 집중되어 있어 독립변수인 9가지 요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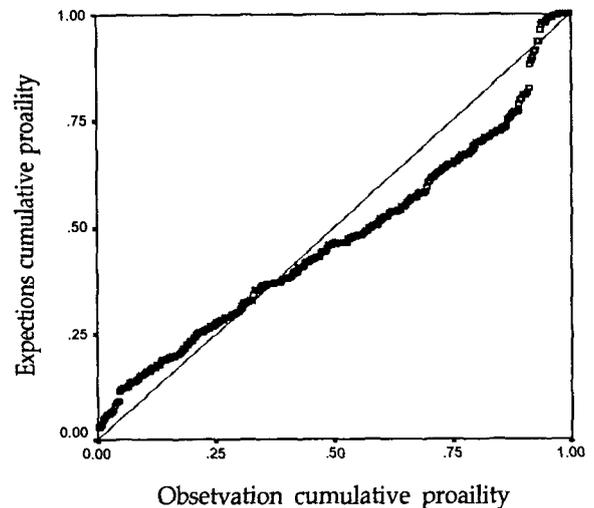


Fig. 2. The normal probability chart of regression standard residual on consumer 's taste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따라 종속변수인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대한 예측의 정도도 높다고 생각된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

단계별로 각 영향 요인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가는 Table 4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단계 I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 거주지, 월평균 소득, 학력 등을 회귀분석한 결과, R²의 값이 0.065로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거주지, 월평균 소득, 학력 등 3개 변수가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대하여 6.5% 정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의 통계적 유의 수준이 p<0.05에서 유의하고 이 단계에서는 월평균 소득의 표준회귀계수($\beta=-0.158$)가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단계 II에서는 단계 I에 잔류농약을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R²값이 0.078로 단계 I에서 보다 0.013의 설명력이 추가되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7.8% 정도 설명되었고 여기서 월 소득과 잔류 농약은 p<0.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이 단계에서도 월평균소득의 표준회귀계수 ($\beta=-0.151$)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단계 III에서는 단계 II에 건강식품을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R²값이 0.129로 단계 II에서 보다 0.051의 설명력이 추가되어 12.9%정도 설명되었고 이 단계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표준회귀계수($\beta=0.237$)가 높아 변수 중에서 친환

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단계 IV에서는 단계 III에 판매가격을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R²값이 0.162로 단계 III에서 보다 0.033의 설명력이 추가되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16.2%정도로 설명되었고 이 단계에서는 표준회귀계수($\beta=0.215$)가 가장 큰 건강식품이 영향력이 높았다.

단계 V에서는 단계 IV에 구입장소를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R²값이 0.179로 단계 IV에서 보다 0.017의 설명력이 추가되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17.9% 정도 설명되었다. 이 단계에서도 표준회귀계수($\beta=0.169$)가 가장 큰 건강식품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VI에서는 단계 V에 장소선택의 이유를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R²값이 0.214로 단계 V에서 보다 0.035의 설명력이 추가되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21.4% 정도 설명되었다. 이 단계에서도 표준회귀계수($\beta=0.213$)가 가장 큰 건강식품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 VII에서는 단계 VI에 품질보증을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R²값이 0.250으로 단계 VI에서 보다 0.036의 설명력이 추가되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25.0%정도로 설명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품질보증의 표준회귀계수($\beta=0.208$)가 가장 높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분석모형에 의하여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25.0%정도가 설명되었고 이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표준회귀계수에 따라

Table 4. Analysis of regression among step; on consumer 's taste of environment-fiendly agricultural products.

Variale	Step I	Step II (Step I +1)	Step III (Step II +2)	Step IV (Step III +3)	Step V (Step IV +4)	Step VI (Step V +5)	Step VII (Step VI +6)
Dwelling district	-0.070	-0.049	-0.021	-0.034	-0.015	0.016	0.013
Monthly average pay	-0.158**	-0.151**	-0.137**	-0.143**	-0.082**	-0.118**	-0.100*
Academic career	-0.082	-0.088	-0.087	-0.087	-0.119	-0.052	-0.056
Residual chemistry		0.117**	0.078	0.090*	0.118**	0.114**	0.106**
Health food			0.237***	0.215***	0.196***	0.213***	0.172***
Selling price				0.182***	0.159***	0.131**	0.108**
Purchase place					0.154***	0.156***	0.141***
Reason for place selection						0.190***	0.157***
Warranty of the qualty							0.208***
R ²	0.065	0.078	0.129	0.162	0.179	0.214	0.250
Change amount of R ²		0.013	0.051	0.033	0.017	0.035	0.036

*p<0.10, **p<0.05, ***p<0.01

열거하던 품질보증($\beta=0.208$)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다음으로 건강식품($\beta=0.172$), 장소선택의 이유($\beta=0.157$), 구입장소($\beta=0.141$), 판매가격($\beta=0.108$), 잔류농약($\beta=0.106$), 월평균 소득, 학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한 소비자들 중 86.2%가 친환경 농산물을 건강과 자연을 생각하는 농업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체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주요 친환경 농산물 구입처는 대형할인마트와 직거래라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집 근처에서 일상용품과 같이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과 신뢰성 확보가 소비 확대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의 단점 및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의구심, 높은 판매가격, 외형불량, 판매처 발견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재배 현장 견학 및 체험기회 마련과 품질보증 등 소비자 신뢰확보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판매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가격 책정 근거와 가치를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질적·외형적 상품성 향상과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주지, 월평균 소득, 학력, 잔류농약, 건강식품, 판매가격, 구입장소, 구입장소 선택 이유, 품질보증 등을 가설로 설정하여 ANOVA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가설이 검증되었다.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품질보증, 건강식품, 장소 선택의 이유, 구입장소, 판매 가격, 잔류농약, 월평균 소득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거주지와 학력은 유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구입처, 친환경 농산물의 단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 등 구입 실태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 보았고 이를 토대로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ANOVA분석, 상관분석으로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성향 분석 결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입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88.2%였으며, 채소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이유는 건강이나 질병치료를 위해서가 많았으며, 대부분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 구입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일반농산물과의 선호도에서는 85.8%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장래에도 가격이 저렴하고, 재배·유통과정이 확실하면 계속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89.3%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향에서 나타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재배 및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인증 관리와 함께 관행재배 농산물이 유사 판매되지 않도록 하며, 잔류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다양하게 하고, 고소득층이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생필품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한편, 생산 및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절감시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하는 이유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등 소비 확대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반응과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경험적 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소비 확대와 친환경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주요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1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공모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Anonym. 1995. The case for organic. pp. 41-72, 2th

- ed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ellness Letter* **11(7)**, 1-3.
2. Chung, K.S., S.M. Sohn and Y.G. Lee. 1996. Environmental friendly function and safe food production by organic agriculture in Europe.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5(1)**, 45-66.
 3. Kim, Y.H. and S.M. Sohn. 1999. Appraisalment and purchase consciousness of consumer on organically grown product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8(1)**, 49-67.
 4. Kim, H. 1996. A case study on management income and productivity in organic farming.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5(1)**, 31-44.
 5. Kim, H. 1999. Development issues and analyses on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7(2)**, 53-66.
 6. Kim, J.M. 1999. The economics organic farming and biodynamic farming in international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7(2)**, 17-33.
 7. Kim, J.M. 1999. Organic farming and financial support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Implication for organic farming policy in Korea-.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8(1)**, 1-17.
 8. Kim, C.S and G.Y Son. 1999. Management situation and revenue-cost analysis in sustainable apple farming.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8(1)**, 37-48.
 9. Kim, H. 2000. Development issues and situations of policies on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8(3)**, 77-90.
 10. Kim, H. 1999. Development issues and analyses on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7(2)**, 53-66.
 11. Oh, H.S. 2000. Marketing developmen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pp. 100-145, 5th eds., *Sung Kyun Kwan University*, Suwon.
 12. Seo, C.H. 1996. Evaluation of the technological system of sustainable farming practices and its extention strate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organic and low-input farming in Korea. pp. 69-81, 4th ed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13. Sohn, S.M and K.S. Chung. 1997. Development, current issues and prospects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5(2)**, 71-84.
 14. Yang, W.M and C.G Lee. 2000. Production and marketing in environmentally friendly horticulture-Exppecially in Chonnam and Chonbuk Province.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8(3)**, 53-75.
 15. Yoon, S.W and J.H Lee. 2000. An analysis on organic farming management.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8(2)**, 17-38.
 16. Yoon, S.W and Y.B Park. 2000. An analysis of Korean consumer on organic farming product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8(3)**, 35-52.

(Received May 29, 2002; Accepted July 16, 2002)